성(性) 박소현의 섹.시.토.크

아내가 입을 열었다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었죠. 지난 5년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대체 어디서 그런 교성을 배워 왔을까요?"

얼마 전부터 잠자리에서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한 아내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있다는 오모씨의 고백이다.

그동안 오씨의 아내는 잠자리에서 그야말로 쥐죽은 듯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불 끄고 커튼까지 모두 내려 어디가 얼굴이고 어디가 몸인지만 간신히 구분되는 방안에서 아내는 달랑 숨소리 하나만으로 모든 의사소통을 끝냈다. 이 남자가 별로다 싶으면 숨소리도 거의 안 들릴 지경이고, 좀 좋다 싶으면 숨소리에 콧바람이 세게 섞여 나왔으며, 힘드니까 그만 끝내자는 신호는 숨소리에다 한 옥타브 낮춘(높인 것이 결코 아니라) '끙' 하는 한 음절을 섞어 넣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그렇게 목욕탕 때밀이 베드에 누운 사람처럼 조용하고 수동적이었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단발마의 비명을 시작으로 온갖 교성을 지르기 시작했으니 어느 남편이 놀라지 않았겠는가? 그렇다고 두 사람의 잠자리 수준이 갑자기 올라간 것도 아니고 평소에 늘 하던 체위, 늘 하던 강도였는데 말이다. 더구나 소리만 낸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생전 사용할 줄 몰랐던 손발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5년간 잠자고 있던 야성이 깨어난 것도 아닐테고 보약을 잘 먹어서 체질이 변한 것도 아닌데 아내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오씨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컴퓨터 깊숙한 곳에 깔아놓은 야동을 몰래 보기라도 했나?' 하고 가볍게 시작된 의문은, 급기야 '혹시 다른 남자에게 부적절한 개인교습이라도 받고 있는 걸까?'라는 위험한 의심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미행을 좀 시켜볼까요?"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이 미행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내가 소리를 내니까 싫으세요?"

"그건 아닌데…,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생각지 마시고 일단은 아내의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아무리 잠자리에서 보수적인 여자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닫아놓은 입을 열고 자신의 수동성을 과감히 바꿔버리고 싶은 때가 오지 않을까? 시간이 되면 목욕탕 때밀이 베드에서도 반대편으로 돌아누워야 하듯이 살다보면 누구나 포지션을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마련이다. 나쁜 변화라면 몰라도 좋은 변화라면 굳이 의심하고 걱정하기 보다는 그저 반기는 것이 좋다. 정 궁금하면 한번 물어보면 그만 아닌가?

> 수영장, 목욕탕 등에서
> 여자들끼리 나누는
> 잠자리 정보야 말로
> 주부 경쟁력의 원천

오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좀 편안해 보였다. 아내의 교성은 그대로였지만 달라진 것은 그의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졌다는 것.

"결혼 한 지 5년 만에 아내가 처음으로 수영장을 다니는데요. 거기서 사귄 친구들에게 들었답니다. 소리를 크게 낼수록 남편이 좋아한다고요."

5년간 부동의 자세를 취했던 그녀가 수영장에서 새로 사귄 친구의 조언 한 마디에 갑자기 잠자리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이 무슨 전설속의 기적 스토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녀의 소리가 더 이상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신호가 아니라 뜨거운 밤을 호응하는 신호가 되었다니 다행이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여자들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나누나요?"

"그럼요. 수영장 뿐 아니라 목욕탕, 꽃꽂이 강습회, 반상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자들끼리 나누는 잠자리 정보야 말로 주부 경쟁력의 원동력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때 오씨의 아내는 정보력이 많이 뒤쳐지는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이제라도 정보공유의 대열에 동참했으니 그나마 다행인 셈이다. 앞으로 아내가 또 어떤 변화를 보이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오로지 기뻐하고 반겨주라고 일러주었다. 아, 그리고 한 마디를 더 덧붙였다. 앞으로 아내의 입을 통해 간밤의 잠자리 점수가 수영장 친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 분명하니까, 앞으로 좀 더 분발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이다.

〈연애 칼럼니스트〉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박경림 깜짝 결혼 발표 네티즌도 '깜짝'

오는 26일 결혼식을 올리는 연기자 심혜진.

유명 스타의 결혼 소식이 인터넷을 달군 한 주였다.

'네모공주' 박경림(28)의 깜짝 결혼 발표 탓에 박경림과 한 살 연하인 예비 신랑 박정훈씨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이들의 이미지를 결합한 가상 2세 사진 등도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특히 박경림의 워낙 편안하고 개구쟁이 같은 이미지 때문에 네티즌들은 물론 친한 동료 연예인들까지도 그의 결혼 소식에 깜짝 놀라는 반응이다. 183㎝의 잘생기고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삼성SDS) 사원이라는 예비 신랑의 이력도 화제 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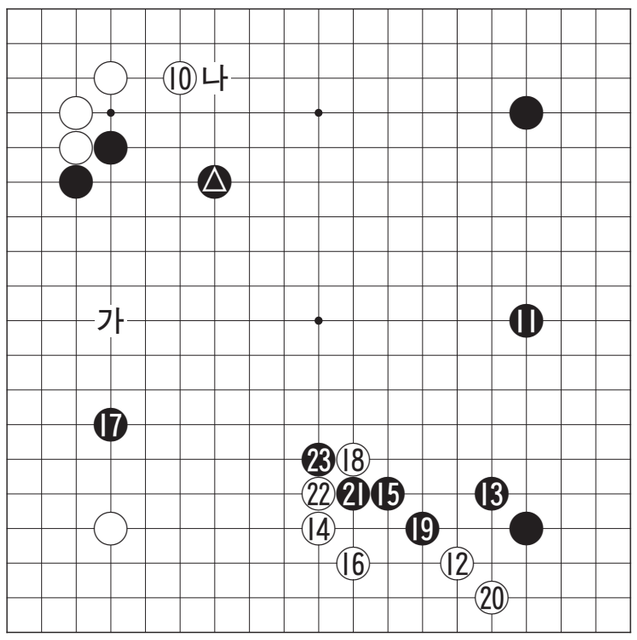
연기자 심혜진(40)이 8살 연상의 벤처 사업가와 오는 26일 결혼하는 소식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영화 '주먹이 운다' 등에 출연했던 배우 서혜린(36)이 3살 연상의 스위스인 티에리 마티씨와 오는 8월 6일 하와이에서 결혼한다는 소식도 검색어에 올랐다.

최근 미니홈피를 통해 새롭게 변신한 모습을 공개한 그룹 슈가 출신 가수 아유미(23)도 화제가 됐다.

과거 둥근 턱선은 계란형으로 바뀌고 통통했던 볼 살도 쏙 빠진 사진이 공개되자 "몰라보겠다.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냐"는 글이 잇따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제4기 KT배 왕위전 16강 — 호방한 포석 — 2보(10~23)

白 윤찬희 초단 — 黑 목진석 9단

목진석 9단은 '괴동'이라는 별명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굉장히 두터운 기풍을 보이는 전투형 기사다. 속기에도 무척 강해 2000년에는 이창호를 2대1로 물리치고 KBS바둑왕전에서 우승한 바도 있다. 세계대회의 최고성적은 2004년 LG배 준우승으로 기대를 모으던 입단무렵의 맹활약에 비해서는 부진한 편이다.

흑 △가 목진석 9단의 기풍을 엿볼 수 있는 대담한 작전이다. 이 수는 보통 '가'방면에 백돌이 있을 때 가볍게 두는 수법인데 대담하게도 호방한 포진을 짜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윤찬희 초단의 백 10도 새내기다운 짠 수로 보통은 한줄 더 '나'에 두는 곳이나 은연중에 목 9단의 파워를 의식하여 힘을 비축하는 인상이다.

흑 13이 또 색다른 수법이다. 이 수는 예전에 중국기사들이 가끔 두던 수법이나 실리에는 허술한 감이 있어 실전에서는 크게 유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목진석 9단은 작정이라도 한 듯 호방한 포석으로 보는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백 18로 세력을 견제하자 흑도 강력하게 23으로 끊어 초반부터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오규철, 왕중왕전 16강 진출

오규철 9단이 3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본선 32강전에서 김세실 2단을 302수 끝에 흑 8집 반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전기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16강에 진출한 오규철 9단은 최철한 9단과 8강 진출을 다툰다. 이희성 7단과 김일환 9단이 조우한 16강전에서는 김 9단이 불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다. 김 9단은 올 초 GS칼텍스배 예선에서 배준희 2단, 유창혁 9단을 차례로 꺾고 결승까지 진출한 바 있다.

왕중왕전 우승상금은 4천500만원(준우승 1천8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62.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그룹 회장의 주택(대지면적 649평·건물 연면적 1천40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평가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공시가격은 91억4천만원으로, 작년보다 6억2천만원이 오른 것이며 실제 가격은 1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① 이건희 회장 ② 정몽구 회장
③ 박삼구 회장 ④ 김승연 회장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4일(음 3월 18일 戊戌)

子 36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여줘야 야랫사람이 따른다. 48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앞만 보고 가라. 60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보라 만족하리라. 72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84년생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44

丑 37년생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49년생 불연이면 이별할 수도 있으니 가정불화는 피하라. 61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긴다. 73년생 바퀴달린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하리라. 85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 17, 28

寅 38년생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억매이지는 말아야 한다. 50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62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74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8, 40

卯 39년생 작은 것은 소중한 것이니 작은 것부터 잘하라. 51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63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일찍 포기해야 대손이 줄어든다. 75년생 돈은 생기나 소비가 크다. 행운의 숫자 : 03, 43

辰 40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면 손재가 크다. 52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64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멀리 찾지 마라. 76년생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덕을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 13, 23

巳 41년생 불필요한 구매로 과소비가 있을 수 있다. 53년생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65년생 평범한 것이 좋은 것이다. 77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운의 숫자 : 05, 26

午 42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은 믿지 말라 독이 된다. 54년생 다투면 손재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66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78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하면 실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2, 42

未 43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55년생 실물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67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79년생 오늘은 귀를 막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9,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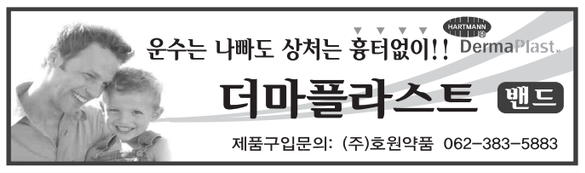
申 44년생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56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 손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68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해결된다. 80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행운이 다가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30

酉 45년생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57년생 득도 많고 실도 많은 날이니 마음을 비우라. 69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면 마음이 평안하리라. 81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 34, 35

戌 46년생 아침은 무력하나 오후는 활발해진다. 58년생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하면 용기가 생기리라. 70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친구가 많으리라. 82년생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행운의 숫자 : 24, 45

亥 47년생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 59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71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 83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행운의 숫자 : 16, 2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897>

Couldn't be better

아주 좋아요

A:Hi, how are you?
B:Fine. And you?
A:**Couldn't be better.**
B:I'm glad to hear that.

A:안녕, 잘 지내니?
B:잘 지내. 너는?
A:**아주 좋아.**
B:그렇다고 하니 기쁘구나.

How's your business?
(응답) Business couldn't be better.
Couldn't be better.
= Never better.
= Great! Wonderful !
= Fantastic!
= Super!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897>

奇抜(きばつ)なアイディアだわ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A:もう、上(あ)がりですか。4時(よじ)ですよ。退勤(たいきん)は6時(ろくじ)じゃないんでしたっけ。
B:シッ! 靜(しず)かにしてください。パソコンをつけっぱなして歸(かえ)ったら社長(しゃちょう)にはばれないですよ。
A:**奇抜(きばつ)なアイディアだわ。**明日(あした)が樂(たの)しみですね。

A:벌써 근무 마치나요?아직4시인데, 퇴근은 6시가 아니였던가요?
B:쉿! 조용히 하세요.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집에 가면 사장님께는 들키지 않아요.
A:**기발한 아이디어네요.** 내일 (벌어질)일이 기대되는걸요.

っぱなし : 동사의 연용형(ます형)에 っぱなし를 연결하면 ~한 채로, 계속 ~한 상태 그대로 계속 이라는 뜻.
奇抜(きばつ) : 기발
奇抜(きばつ)な : 기발한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88>

你说得我快要流口水了

당신이 말하는걸 보니 바로 군침이 흘러요

A:韩国光州有什么好吃的?
Hánguó Guāngzhōu yǒu shénme hǎochī de?
한 구어 꾸앙 쩌우 여우 션머 하오츠 더?
B:好吃的全部都有。
Hǎochī de quánbù dōu yǒu。
하오츠 더 취엔뿌 떠우 여우.
A:**你说得我快要流口水了。**
Nǐ shuō de wǒ kuài yào liú kǒushuǐ le。
니 슈워 더 워 쿠아이야오 리어우 커우수에이 러.
B:那，我们去吃光州的鲜牛肉或者章鱼吧。
Nà, wǒmen qù chī Guāngzhōu de xiānniúròu huòzhě zhāngyú ba。
나, 워먼 취 츠 꾸앙쩌우 더 씨엔니어우로우 후워저 짱위이 바

A: 한국광주에는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나요 ?
B: 전부 다 맛있어요.
A: **당신이 말하니 바로 군침이 흘러요.**
B: 그럼, 우리 가서 광주의 맛좋은 소고기나 문어를 먹읍시다.

流口水 [liú kǒushuǐ] 군침을 흘리다
鲜牛肉 [xiānniúròu] 맛좋은 소고기
章鱼 [zhāngyú] 문어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14>

破竹之勢 (파죽지세)

쪼갤 파, 대나무 죽, 어조사 지, 기세 세

파죽지세(破竹之勢)는 대나무를 쪼갤듯한 맹렬한 기세라는 뜻으로, 전쟁에서 승세(勝勢)를 타고 일거에 진격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대나무는 늘 푸름과 곧음으로 절개의 상징이 되어 사군자(四君子)의 하나로서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는 대신 쉽게 쪼개지는 결점이 있다. 바로 '파죽(破竹)'이다. 파죽지세라는 말은 바로 대나무의 이러한 결점에서 나온 말이다.

진(晉)나라 장군 두예(杜預)가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오(吳)나라를 칠 때의 일이다. 이때 한 장수가 "여름이라 강물이 불어날 것이고, 또 전염병이 발생할지 모르니 일단 후퇴했다가 겨울에 다시 치면 어떨까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두예는 단호하게 "병법(兵法)에 승세를 타라는 말이 있소. 마치 대나무를 쪼갤 때처럼 말이오. 대나무는 일단 쪼개지기 시작하면 칼만 대어도 저절로 쪼개지는 법인데, 어찌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진의 대군은 오의 도읍인 건업(建業·현재 남경)으로 진격하여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이리하여 천하는 다시 진나라가 통일하게 되었다.(晉書·杜預傳)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